

## 질의문 : 극재 어윤적(1847~1933) 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서간도 망명가족의 삶에 대하여

박영민(고려대학교)

선생님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어윤적 가문의 한글 편지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1910년대 간도 이주민의 생활, 고국의 친인척들과의 한글편지를 통한 왕래, 어린 여성이 집안에서 주고받은 한글 편지를 필사하여 보관하는 모습 등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논지에 대해 동의를 하며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 어윤적은 64세의 고령의 나이에 가족을 이끌고 간도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국내의 모든 전답을 정리하여 서간도 망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서학맥의 항일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어윤적 부자는 중국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몇 년 뒤인 1938-1939년 경 후손들이 환국하였습니다. 어윤적의 간도 및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서간도 항일 운동가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어윤적의 간도에서의 활동, 후손들이 환국을 하게 된 배경, 환국 이후의 삶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어윤적은 누이에게 가족 간의 정을 통하기 위해서는 글자를 익혀야 하고, 글자는 진서보다 언문이 더 낫다고 강조하고, 자신의 말을 평범하게 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윤적은 가족 간의 통정의 언어로 한글 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선생님께서도 “한글 편지의 소통과 공감”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윤적은 문자의 기능, 활용에 대해 지극히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화서학파의 일원으로 유학의 자장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의 충돌은 없었는지요?

3. 고흥 유씨가 편찬한 『萬里初程(만니초정)』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고흥 유씨는 10세의 어린 나이에 가족을 따라 간도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고국의 친인척들과 간도의 친인척들이 주고 받은 편지를 필사하여 『萬里初程(만니초정)』을 만들었습니다. 고흥 유씨가 한글 편지를 필사할 때의 심정이나 태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간도에서 생활하였던 여성들의 한글 보급, 문자 인식이 궁금합니다.

4. 어윤적의 한글 편지를 보면 친인척 여성들과의 소통에서 감정 표현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고국을 떠나 유랑하는 이방인의 삶이 나라, 고향, 가족, 친족 간의 유대를 더욱 간절하게 이끈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감정을 특정 성별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윤적과 고국 여성들의 편지에 다른 내용은 없는지요? 격변하는 시기에 여성들이 한글 편지를 통해 새로운 세상, 삶,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고 교류하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